

광산·포항지역 자활센터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업 평가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2012년도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실적 평가결과를 8월 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5개 자활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15곳 가운데 광주 광산지역자활센터, 경북 포항지역자활센터 등 2곳이 선정됐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에게 청소, 집수리, 재활용 사업단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동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하고 고용을 연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15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설치된 지역자활센터의 역량제고 및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매년 이 가운데 25개 자활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15곳 가운데 광주 광산지역자활센터, 경북 포항지역자활센터 등 2곳이 선정됐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에게 청소, 집수리, 재활용 사업단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동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하고 고용을 연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15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활)에서 운영하는 경북 포항지역 자활센터(센터장 김경모)는 지난 1999년 9월 개소 이래 지역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및 주민복지를 위해 활동해왔으며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210여명이 일하고 있다.

247개 시설대상 조사

25개 센터 최우수기관으로

불교계 전국서 15개 센터운영

주요 활동으로 현대제철의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영천댐 주변지역 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 농촌지역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희망의 방

한 칸 프로젝트 사업과 센터의 집수리 자활기업을 연계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주 광산지역 자활센터(센터장 김재진)는 28개 평가항목 중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활참여자의 취업률, 자활사업단의 매출·수익금, 지역일자리 연계·특화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재진 센터장은 “개별 참여자들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 의지를 북돋워준 사업 방향이 주효했던 것 같다”며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단 사람들 및 센터 직원들의 협력이 낳은 결과다”고 수상소

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우수·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장관표창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기관 25개는 우수기관 마크가 새겨진 현판을 수여해 참여자들이 센터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우수기관에 걸맞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지역자활센터는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적극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향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 열려

자연 속 2박 3일 체험, 특별한 추억 남겨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은 8월 7~9일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33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연체험 통합캠프를 진행했다. 광명시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개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이 다양한 자연 속 문화체험과 공동체 활동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습득해 상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염전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참가 학생들은 서해안에서 펼쳐진 갯벌·염전체험, 소원등 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소중함을 몸소 느꼈으며, 단체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공동체 정신과 우정을 쌓았다. 특히 학생들은 태안해안공원 천사길(장애인코스)을 찾아 지는 해를 보며 함께 트레킹하면서 여름방

학의 추억을 남겼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김경수(중학교 3학년)학생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서로 챙겨가며 나는 추억들이고 3수험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장애청소년과도 정이 많이 들어 헤어질 때 아쉬운 마음이 컸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

국제선센터, 11일 관내 복지기관들과 업무협약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탄웅)가 칠월 칠석을 맞아 관내 복지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자비의 오자교'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제선센터는 8월 11일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안)·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희재)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과 장애인들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소년과 장애인의 정서 안정을 위한 명상, 상

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후원사업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관 대상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목동청소년수련관장 지안 관장은 “선센터와 인연을 언제 맺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희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은 “관내 18,000명 장애인 중 절반 가량이 극빈층이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들이 명상, 상담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인연과 서원’을 기도하는 날인 칠월칠석은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제선센터가 ‘자비의 오자교’가 돼 지역 복지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속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선센터는 칠석기도 기간 중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모아진 사랑의 떡 600인분 전달식을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는 8월 11일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 양천종합장애인복지관과 지역 청소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최했다. 사랑의 떡은 협약을 맺은 산적업능력개발원의 장애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속초시노인복지관, 기체조·명상실시

매월 1회 무료특강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8월 13일 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어르신을 위한 '마음을 다스리는 기체조·명상'을 진행했다. 복지관은 단월도 속초센터와 연계해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기체조와 명상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노년 건강관리 방법과 중요성, 뇌체조, 호흡명상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속초시노인복지관은 “매월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무료특강



기체조·명상 체험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

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문가를 연계해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 점수를 통해 이용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33)636-3373 이나은 기자

주민복지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 높여요

성북장애인복지관, 8월 9~10일 지역주민에 특강 실시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8월 9~10일 지역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복지학교를 실시했다. 초등학교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이번 주민복지학교는 지역주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교육, 장애인교육, 장애인교육 등이 진행됐다. 장애인교육은 국립재활원 장애

발생예방 부서에서 실제 사고로 중도장애를 입은 뒤 장애인교육으로 활동 중인 송치현·김병일 강사가 진행했다. 송치현 강사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며 “평상시 항상 주변을 잘 살펴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성북장애인복지관 사회복

지사는 장애인교육 시간에 장애에 대한 개념과 종류, 특성, 에티켓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달했다. 이밖에 장애인교육은 지역주민들이 시각장애체험을 함으로써 장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주민복지학교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장애인을 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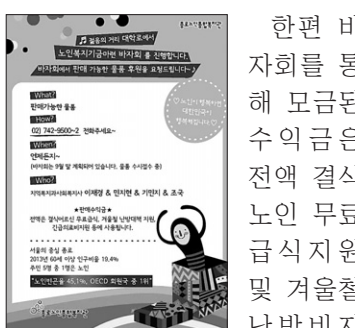


성북구 지역주민이 시각장애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종로노인복지관 바자회

9월 25~27일 대학로서 열려, 후원품목 접수 중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25~2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인복지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복지관은 바자회를 위해 현재 후원물품을 접수하고 있다. 후원품목은 의류, 잡화, 생활용품, 도서, 아동용품, 농산물 등 판매가 가능한 모든 제품이며, 후원자는 연발정신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전액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및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긴급의료비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02)742-9500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국립한외과대학 특차 모집

-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외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외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 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8월 31일
-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정성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헤인 합장

입종 및 사찰 등록 안내

-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 참고사항 ◆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